

지역 소식통

신성장 유망기업, 익산에 '등지'

군산시, 식품위생업소 관리 강화

군산시가 관내 공중·식품위생 업소(공중위생 1,899개소, 식품위생 7,874개소)의 위생 수준 향상 도모에 나선다.

먼저 위생행정 분야의 중점과제로 위생서비스 마인드 함양을 통한 공중 및 문화콘텐츠업소의 지도·관리를 강화하고, 특색 있는 '맛의 거리' 조성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식품위생분야에서는 관광객의 발길을 머물게 할 대표음식·모범음식점 및 '군산맛집' 발굴과 육성 등 내실 있는 업무 추진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또한 식품안전분야는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안전관리를 체계화하고 건강기능식품의 안전한 유통체계 확립에 나설 방침이다.

유류식품분야에서는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및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구축으로 어린이 행복도시 조성에 기여하고 집단급식소 등을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 강화를 통해 시민의 건강한 식생활 관리를 도모할 계획이다.

오육사 식품위생과장은 "군산시는 올해도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업무 추진을 통해 공중 및 식품위생업소의 위생 수준 향상을 도모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관광 광역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군산=문정근 기자

한준수 군산시부시장

현안 사업 해결·행자부 방문

한준수 군산시부시장이 지역 현안 사업 해결을 위해 중앙부처 방문길에 올랐다.



8일 한 부시장은 행정자치부 교부세과를 방문하여 시급한 지역 현안 사업인 공단대로 확장공사, 장애인 체육관 및 평생교육시설 건립 등 2개 사업에 대해 사업추진의 타당성을 설명하고 총 35억 원의 특별교부세 지원을 요청했다.

이번에 지원을 요청한 공단대로 확장 공사는 산업단지 출퇴근 교통 불편 해소 및 미정택지 지구 개발에 따른 교통흐름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장애인 체육관 및 평생교육시설 건립은 장애인들의 체력과 건강의 회복을 돕고 지속적인 평생학습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필수적인 사업이다.

한 부시장은 "특별교부세는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에서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다"며 "실득논리의 개발은 물론 중앙부처 및 정치권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최대한 활용하여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군산=문정근 기자

시, 에버사인-연두-케이씨드론항공 투자협약 체결...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익산시와 전북도는 8일 오전 시청 상황실에서 정현을 익산시장, 전해성 전라북도 투자유치과장, 김주일 문화산업국장, 김정수 익산시의회 부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에버사인, (주)연두, (주)케이씨드론항공과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투자협약을 체결한 (주)에버사인은 익산 제3산단 10,000㎡ 부지에 35억 원을 투자하고, (주)연두는 익산 제4산단 4,960㎡ 부지에 30억 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주)케이씨드론항공은 익산의국인부품소재전용단지 19,362㎡ 부지에 2021년까지 80여 억원을 투자할 예정으로 이들 3개 기업의 총 146억원 투자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경우 170여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이 예상된다.

(주)에버사인은 비닐하우스폴조용 스틸프레임과 에어캡비닐, 자가발전용 태양광시스템을 자체 생산할 계획이다. '하우스폴조용 스틸프레임'은 기존 원형파이프에 비해 굵기 강도가 2배 이상, 내하중도는 5배 이상 개선되어 폭설과 태풍에 강한 내재해형 하우스철재다. '에어캡비닐'은 보온성이 탁월하고



익산시와 전북도는 8일 오전 시청 상황실에서 정현을 익산시장, 전해성 전라북도 투자유치과장, 김주일 문화산업국장, 김정수 익산시의회 부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에버사인, (주)연두, (주)케이씨드론항공과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빛의 산란율이 향상된 하우스 덮개용 비닐이다. 향후에는 특허출원 모듈로 비닐하우스에서 필요한 전력을 자체 생산하는 시스템을 개발완료하고 전북·충청권을 필두로 전국적인 영업망 확장과 시공으로 사업을 확장할 예정이다. 파우치용료 전문생산 기업인 (주)연두는 남양유업, 웅진식품 등 유수의 식

품 회사들과의 OEM 협업을 통해 파우치용료 생산에 축적된 다양한 노하우를 확보한 신규창업 업체다. 자체개발한 맛돌 방식 듀우액 추출 설비를 갖추고, 100% 국산 검은콩 무첨가 듀우를 만든 기술력으로 과제유료, 커피류, 듀우유 등 생산하며 향후 자체브랜드 개발 및 해외 수출도 추진할 계획이다. /익산=장양원 기자

하림, AI 이동중지 자체발동 방역 강화

사육 농가·사업장 등 시설 소독·세척 작업 실시

하림(대표이사 이문용)이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방지를 위해 도축장과 사업장, 계열농가 등 두 번째 이동중지(Standstill)를 자체 내 발동하고 전면 방역에 나섰다.

하림은 8일 자정부터 9일 자정까지 24시간동안 익산·정읍 도계공장과 사료공장, 직영농장, 계열화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스탠드스틸을 발동했다. 이번 2차 이동중지 발동은 지난 7일 낮 12시부터 8일 낮 12시까지 이어 두

번째로 원전방역을 위해 모든 사업장과 차량, 농가까지 포함한 방역체계이다. 이번 조치로 하림은 전국의 직영·계약농가 600여곳을 포함해 종란차량 8대, 병아리 운반차 13대, 사료차 68대, 생계차량 127대, 기타 지역소장 차량 등 총 269대가 이동 중단된다.

또한 2차 이동중지 기간 동안 사육 농가와 사업장 등 시설에 대해서도 철저한 소독과 세척작업을 실시해 AI 방역에 만전을 다하기로 했다. 하림은 또 지난달 27일 익산 용동면

에 AI 발생이후 전북도와 익산시 등과 협의해 예방적 살처분 농가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HBC 계열농가에서는 지난달 27일 익산시 용동면 201농장 6만2,000수 정도를 처분한데 이어 3월 6과 7일에는 101농장, 102농장에 대한 총계 5만수를 매몰 작업을 완료했다.

지난 3월 6일 저녁 8시부터 새벽까지 실시된 익산시 용동면 계약사육 농가에 대한 매몰 작업에 하림 직원 42명이 긴급 투입돼 7만3,000수를 살 처분 했으며, 8일 인근 농가에도 30명이 투입돼 6만5,000수에 대한 작업을 완료 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군산시 임피면, 육계 농장 AI항원 음성 판정

군산시 임피면 육계 농장에서 검출된 AI항원에 대해 최종 음성 판정이 내려졌다.

군산시는 지난달 28일 도축장 출하 사전검사에서 AI(H5)항원이 검출됐으나,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정밀검사결과 최종적으로 음성판정을 받았다고

8일 밝혔다. 군산시는 음성판정 결과 접수 후,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에 의해 설정되었던 방역대와 사육농가 이동 제한 명령을 해제하고, 사료 및 식용란 환적장 이용과 분뇨 배출제한 등 관련 방역조치사항을 일괄 해제했다.

문동신 군산시장은 "최종 검사결과 음성판정이 나와 다행이지만, 4개월여 고생한 농가와 시청 전 직원들의 노고가 물거품 되지 않도록 AI 종식 시까지 적극적으로 방역활동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군산시는 최종 음성 판정과는 별개로, 기존에 추진하던 차단방역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군산=문정근 기자

익산시 취업지원사업 기업 모집

내일까지... 근로자 5인 이상 고용보험 가입 대상

익산시는 청년·중장년 일자리 창출과 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2017년도 전북형 취업지원사업인 전북형 청년취업지원사업, 4060 중장년 취업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3월부터 10월까지 참여기업을 수시 모집한다.

대상 기업은 익산시 소재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고용보험 가입 기업이다.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익산시로 되어 있는 미취업자가 3개월간 수습기간을 거쳐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조건으로 ▲청년 취업지원은 청년(만25~39세)을 고용한 기업 이 월 급여 160만원이상 지급 시 월 50~80만원 ▲4060 중장년 취업지원은 중장년층(만40~59세)을 대상으로 고용한 기업이 월 급여 140만원이상 지급 시 월 60만원씩을 최대 1년간 지원한다.

또한 사업에 참여한 청년 및 중장년층 취업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자 2년간 최대300만원(중장년 최대200만원)의 취업장려금을 지원한다.

참여 희망 기업은 미취업자를 채용한 후 구비서류를 갖추어 익산고용복지+센터 1층 22번 창구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홈페이지 내 부서별 홈페이지(민생경제과) 참조 및 민생경제과 일자리창출계(859-5274)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추가모집을 통하여 구직자에게는 취업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인건비를 지원해 경기불황에 따른 신규 고용 창출과 기업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군산시의회, 첫 임시회 의사 일정 폐회

군산시의회(의장 박정희)가 올해 첫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군산시의회는 8일 제2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안건을 의결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7년도 첫 업무보고로 계획된 사업에 대한 문제점 검토와 합리적인 대안 등을 제시했다.

또한 각 상임위별로 간담회와 고군산군도 연결도로 개통대비 현장방문, 군산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2건의 부의안건을 심의했다.

특히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군산시의 세입세출 결산, 세출분야 주요사업의 예산집행, 이월사업의 적정성 검

토, 불용예산 발생현황 및 요인분석, 채권 및 채무결산, 재산 및 기금 결산 등의 업무를 감사할 2016회계연도 군산시 결산감사위원 5명을 선임했다. 이어진 5분 발언에서 배형원 의원은 군산시 관광 주요 거점지역과 시내버스의 주요지점, 맛집 등에 QR코드를 설치해 대중교통 정보의 접근성 강화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교통약자에 대한 편의시설 확충을 주문했다. 서동완 의원은 페이퍼코리아 이전 관련 군산시에 TF팀을 구성해 공장 이전 및 청주공장 양수에 대한 재원 조달에 대해 면밀한 점검과 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주문했다. /군산=문정근 기자

익산시, 농업생산기반 시설물 정비... 영농기반 조성

익산시는 시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농촌의 생활여건개선사업을 비롯한 농로확포장, 용·배수로 정비 등 농업생산기반 시설물을 대대적으로 정비해 농촌에 쾌적하고 안전한 영농기반을 조성한다.

올해 사업으로는 합월읍 외 19개 면·동 지역에 농로 확포장사업,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용배수로 정비 등의 사업에 31개소 54억원(국비34, 도비2, 시비18)을 투입해 농촌의 민생안정 과 영농환경을 우선적으로 개선

한다. 시민참여예산으로 확정된 농로확포장 및 용·배수로 사업에 대해서는 영농기 이전에 공사를 발주 및 완료해 주민들의 영농불편을 해소하고 우기철 수해 피해를 미연에 방지한다.

농업생산기반 정비 사업은 농민들의 영농 편의와 안정된 삶의 터전마련과 직결되는 사업으로, 시는 농민들의 편리하고 안정적인 영농활동이 가능하도록 추가예산을 확보 지원할 계획 이다. /익산=장양원 기자

어린이 행복도시 건설

풍향경을 갖춘 동북아경제중심 명품도시 군산

어린이와 시민 모두 행복한 도시 군산!
 풍부한 문화 콘텐츠 근대 역사 문화도시!
 동북아 산업과 관광의 허브 군산·새만금!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으로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다!!

Dream Hub GUNSAN 군산시 GUNSAN CITY